

아포리즘, 단순하거나 혹은 기발하거나

강주헌 | 번역가

우리말로 격언, 금언, 혹은 더 멋지게 잠언(箴言)이라 번역되는 아포리즘(aphorism)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우리말로 '격언'은 '사리에 맞고 교훈이 될 만한 짧막한 말'이라 풀이되고, '잠언'은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이라 풀이된다. 한편 영어에서 아포리즘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용인되는 진리가 담긴 짧막하고 간결한 말'이란 뜻이다. 격언이나 아포리즘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아포리즘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면 어떤 결론에 이를까?

어린 시절부터 미친 듯이 동서양의 아포리즘을 수집하던 제임스 기어리가 《한 문장 속의 세계: 아포리즘의 역사》라는 책을 최근에 발표했다. 그런데 저자는 왜 아포리즘에 집착해서 이런 책까지 썼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 하나는 과학을 통해 얻는 지혜다. 그런데 이 지혜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 반면에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있다. 그런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포리즘이다. 요컨대 아포리즘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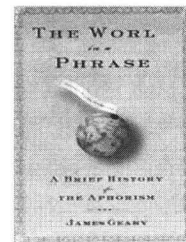
따라서 이 책에서 기어리는 아포리즘을 내용별로 여섯 유형으로 나눠 설명하지만 어떤 아포리즘이나 삶의 지혜가 담겼다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말한다. 저자는 일곱 유형을 각각 아포리즘으로 소개한다. ① 생각하는 대로 된다. ②부는 맨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비례한다. ③세상에서 가장 높은 옥좌에 앉아도 결국에는 엉덩이를 깔고 앉아야 한다. ④선과 악의 구분은 신의 편견에서 시작되었다. ⑤가난은 만약의 근원이다. ⑥너 자신을 알라. ⑦태초에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진부한 말뿐이다. 한마디로 촌철살인의 모음이다.

이 책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저자가 제시하는 아포리즘의 다섯 가지 법칙이다. 첫째는 간결함이다. 앞의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아포리즘(격언)은 짧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짧은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라는 아포리즘은 되새겨봄 직하다. 둘째

는 단정적이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애매해서는 안 된다. "애국은 깡패에게 마지막 피신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성격을 띠는 점이다. 이 부분이 재밌다. 가끔, 서로 모순되는 아포리즘이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컨대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진다"와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않는 사람은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우리에게 대체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건지 막무가내로 살라는 건지 헷갈리게 만든다.

따라서 그 뜻을 헤아리려면 아포리즘의 역사를 추적해야 한다. 저자가 부제를 '아포리즘의 역사'라고 붙인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네 번째는 비틀기다. 곧이곧대로 말하면 아포리즘의 맛이 떨어진다. 약간 비틀어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빈정대고 풍자해야 아포리즘의 맛이 산다. 예를 들면, "독창적인 작가는 누구도 흉내내지 않는 작가"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작가"라는 것이다. 독창적인 작가를 칭찬하는 것인지 아니면 빈정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포리즘은 그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읽으면서 그 뜻을 추측해보는 재미도 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철학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철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철학자가 아니다!" 멋진 말이다. 철학자인데 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아포리즘이다. 흥미롭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부지런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책이다. 결국 아이디어가 문제다. **★**

English



원 제 《한 문장 속의 세계: 아포리즘의 역사》
The World in a Phrase: A History of Aphorisms
저 자 제임스 기어리 James Geary
출판사 블룸즈버리 퍼블리싱 Bloomsbury Publishing (NY)

감금사건의 희생자를 통해 인간의 잔학성을 이야기하다

윤성원 | 번역가

Japanese



원 제 《잔학기》
저 자 기리노 나츠오
출판사 신초샤

판사가 전송해온 편지를 읽고 여류작가가 실종된다. 그녀가 남긴 원고에는 25년 전에 일어났던 소녀유괴 감금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적나라하게 씌어 있었다. 그리고 실종되기 직전에 그녀가 읽었던 편지의 발신인은 바로 그 유괴사건의 범인이었다. 이 소설은 일본 니가타에서 있었던 여자초등학교의 감금사건에 착상하여 씌어진 작품이다. 그렇지만 이 실제사건은 단지 모티브가 되었을 뿐 작가는 오래 전부터 감금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한다. 감금된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피해자의 시점에서 본 세계를 그려보고 싶었다고 한다.

작가인 기리노 나츠오는 나오키문학상을 비롯하여 굵직굵직한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일본문단에서는 영향력 있는 작가이다.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추리소설이 대부분인 그녀의 작품에는 범인을 추적 해가는 요소보다는 가족붕괴, 외국인노동자, 살인사건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다루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시대상을 파헤친 충격적인 작품을 잇따라 발표해온 작가가 이번에는 감금사건의 희생자였던 소녀를 통하여 인간의 잔학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사실 제목과 작가의 이미지로 미루어 보면 소설에는 소녀감금이라는 잔혹함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을 것 같지만 그보다는 감금된 소녀의 심리묘사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열 살짜리 소녀의 관찰력과 상상력에는 압도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성적 폭행은 당하지 않았다는 소녀는 구출된 후에도 지난 1년 동안의 감금생활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는다. 주변사람들의 어설픈 동정과 호기심이 가득 찬 눈길을 느꼈고, 그들이 제멋대로 펼치는 상상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곤 그에 대한 증오를 싹틔웠기 때문이다.

잔학이라는 직선적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유괴 감금생활 그 자체를 비롯하여 범인의

과거도 잔학하였고, 소녀가 구출된 후 경찰 및 병원 관계자, 그리고 세상의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도 잔학하였다.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잔학함이 작품 곳곳에 깔려 있다. 이 책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맞서 상상력을 펼치는 것으로 겨우 버텨낼 수 있었던 소녀의 내면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다.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감금생활보다 구출된 이후 소녀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제는 감금생활보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잔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삶이 중단된 소녀의 마음의 상처가 아리게 다가온다. 정신적인 잔학함이 여지없이 클로즈업된다.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에 바탕을 두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로 완성시킨 작가의 역량은 분명 주목해볼 만하다. 아무도 그 진상을 알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감금생활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종류의 이야기라면 눈을 돌리고 싶겠지만, 이 이야기는 상처 받은 인간내부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시에 구성의 절묘함도 맞출 수 있다. 실종된 주인공이 남긴 원고를 뒤적이던 남편이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때때로 그 경계선이 혼란스러울 만큼 생생하다. 읽어나갈수록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개념이 무너지면서 결국 싸워야 하는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뼈저린 깨달음, 그리고 복잡한 구조를 지닌 소설이다.

유쾌하지 않은 소재를 가진 이야기지만, 그리고 읽고 난 후에 상쾌한 느낌을 주는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의 필력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늘 그러하듯 작가는 여성에게 내재되어 있는 분석해낼 수 없는 어두움을 그려낸다. **한**

“욕망은 인간의 영적 발전에 장애가 아니다”

조정훈 | 번역가

파리를 여행해본 이들이라면 알겠지만 햇볕 따뜻한 공원 근처와 지하철 역사는 언제나 노숙자들로 북적거린다. 그런데 해마다 겨울이 되어 추워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는 날이면,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선 경찰, 공무원, 역무원, 각종 복지단체 종사자들이 총동원되어 거리의 노숙자들을 따뜻한 곳으로 '모시기' 위한 소동이 벌어진다.

또 이맘때면 텔레비전 뉴스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다. 프랑스 온 국민이 사랑해 마지않는 신부 아베 피에르다.

아베 피에르는 19세 때 가톨릭 신부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활동도 했던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949년 엠마우스 공동체를 설립하고 굶주리고 오갈 데 없는 이들과 생활하며 빈민 운동을 전개한다. 그는 지난 1954년 닥친 한파로 파리 시내에서 집 없는 한 여인이 동사한 사건이 발생한 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성금이 이어졌다. '선의의 폭동'이라 그가 이름붙인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그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곁에서 함께 행동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아직도 93세의 이 노인을 '행동하는 성자', '빈민의 아버지'로 일컫는다.

이런 아베 피에르가 최근 회고록 형식으로 출간한 《하느님... 어찌하여?》라는 책은 사제로서 욕망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한때 욕망에 굴복한 적이 있다고 밝히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여자와 관계를 가졌느냐 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톨릭 신앙의 율법에 대해 쏟아낸 거침없는 의견들이었다. 그는 “주변에 내연의 여자와 동거하는 사제를 알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훌륭한 성직자로 남아 있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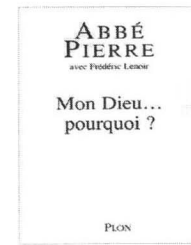
이제 “가톨릭 사제들의 독신서약은 의무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욕망을 제거하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을 축약하고 제한하는 것”이라며 “욕망은 인간의 영적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나이가 그는 여성의 사제서품까지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즘은 누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며, 타인을 지도하고 이끄는 자질이 부족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여성의 사제서품을 금하는 것이 “고대의 마초이즘(남성우월주의)을 영속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는 동성애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심리적, 사회적 충격을 받지 않게 하는 조건에서 허락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가톨릭 신도들이 많은 프랑스에서는 아베 피에르의 이런 솔직 대담한 발언에 무척 당황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예민한 문제가 ‘살아 있는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아베 피에르 신부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제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율법을 완고하게 유지하려 하는 가톨릭교회의 보수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피에르는 “교황이 아직도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교황청에까지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운다. 프랑스 대주교 회의는 그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 “대중 선동”이라며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타인을 위한 봉사에 평생을 바친 한 노신부가 촉발한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아베 피에르는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의 대립이라는 근본적인 신앙문제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

Fre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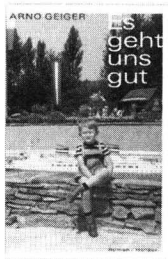


원 제 《하느님... 어찌하여?
Mon Dieu... Pourquoi?》
저 자 아베 피에르 Abbe Pierre
출판사 PLON

사소한 가족사, 그러나 '수상한 뭔가' 를 발견한 수상작

김재혁 | 번역문학가, 시인, 고려대 교수

German



원 제 《우리는 잘 지내
Es geht uns gut》
저 자 아르노 가이거 Arno Geiger
출판사 한자 Hanser

올해는 독일 작가들 가운데 전통적으로 낮은 형식으로 알려진, 이른바 가문의 연대기에 의지해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소설을 쓴 작가들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출신의 37세의 젊은 작가 아르노 가이거가 가장 돋보인다. 그는 이번 가을에 장편소설 《우리는 잘 지내》로 독일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삼십 중반의 실업자 필립은 자신의 가문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가문의 역사, 조상 같은 것은 그에게 한낱 고물단지 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할머니가 그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저택만 좋아할 뿐, 그 집에 얽혀 있는 기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2001년 봄, 필립의 할머니 알마는 93세의 나이로 빈에서 세상을 떠난다. 그 큰 저택을 지켜온 가문의 마지막 여인인 그녀가 세상을 뜨자 필립은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한다. 그러나 알마, 그녀의 모든 편지들을 담아놓은 신발 상자가 사라지고 없자, 필립은 애석해한다. 돈이 될 만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알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바로 이 주인공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것에 작가는 관심을 갖는다. 작가는 하마터면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져버렸을 것들을 건져서 방대한 가족사 소설을 전개한다. 그렇다면 아이도 낳지 않으려 하고, 점증하는 이혼율과 은퇴 후의 연금에 대한 불안으로 점철된 현 시대에 이런 가문 연대기 소설이 새롭게 등장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이런 소설이 오래 입은 털옷처럼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어 독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평론가 라이하-라니츠키는 토마스 만 사거 50주년을 기리는 자리에서 “최근까지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 왔던 가문 연대기 소설이 되살아났다. 토마스만의 《뫼텐부르크 일가》(1901)에 의해 19세기에서 20세기로 이식되면서 전격적으로 현대화된 가문 연대기소설은 21세기에도 살아 있다”라는 판결

을 내렸다.

사실 가문 연대기 소설 형식이 아직도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 형식이 시대의 사소한 일상을 그림으로써 그 시대 전반에 얽혀 있는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이거의 소설 《우리는 잘 지내》에서는 20세기 오스트리아의 3세대에 걸친 한 가문의 삶이 이야기된다. 연도 상으로는 1938년에서 2001년까지의 시기이다.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필립의 행동이 소설의 큰 틀을 이루고, 각 시기마다 중요한 하루가 여러 각도에서 조명된다. 즉 알마와, 늙어서 정신이 몽롱해져가는 그녀의 남편 리하르트, 필립의 아버지 페터와 목욕 중 사고로 일찍 죽은 필립의 어머니 잉그리트의 하루가 각각 서술된다.

특히 한때 정치가였던 할아버지 리하르트 슈테르크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장들은 할아버지 자신의 시각에서 서술되든(1938년과 1962년 두 번에 걸쳐), 그의 딸 잉그리트의 시각에서 서술되든(1955년), 아니면 그의 아내 알마의 시각에서 서술되든(1982년과 1989년), 현재 독일어로 쓰여진 문학작품 중 가장 눈길이가 가는 부분이다. 아르노 가이거는 이러한 사건들에 감상을 개입시키지 않고 때로는 연대기적으로, 때로는 연대기와 관계없이 능란한 솜씨로 서술한다. “덧없음과 순간, 역사적인 것과 사적인 것, 기억과 망각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했다”는 것이 그가 ‘올해의 독일 문학상’을 받은 이유였다. 이렇듯 평범한 일상의 서술 뒤에, 즉 《우리는 잘 지내》라는 진부한 말 배후에 뭔가 수상한 것이 들어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아르노 가이거는 오스트리아의 포랄베르크에서 성장하였으며 빈과 인스브루크 대학에서 독문학, 역사학, 비교문학을 공부했다. 여름철이 되면 브레겐츠 축제에서 비디오 기술자로 일하며 부업으로 돈벌이를 하기도 하는 그는 이미 프리드리히 뢰들린 문학지원금을 받았으며 현재는 빈에 살고 있다.